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오셀로』 (*Othello*)에 나타난  
여성 혐오와 여성의 정체성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高 旻 廷

2022年 08月

# 『오셀로』(Othello)에 나타난 여성혐오와 여성의 정체성




指導教授 宋一商

高旻廷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2年 8月

高旻廷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진성운   
委 員 허윤혁   
委 員 송일상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22年 8月

<국문초록>

『오셀로』 (*Othello*)에 나타난  
여성혐오와 여성의 정체성  
高 旻 廷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宋 一 商

본 논문은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비극 『오셀로』 (*Othello*)에 나타난 주인공인 오셀로(Othello)와 데스테모나(Desdemona)가 파멸로 이어지는 비극의 문제를 타자로서의 오셀로의 여성혐오와 데스테모나의 여성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밝히는데 있다. 『오셀로』의 배경이 되고 있는 르네상스 시대의 베니스 사회는 인종 편견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있고, 특히 이방인과 주변인으로서의 타자들에 대한 인종적 편견과 성적 차별과 혐오에 대한 강요와 위협이 일반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당시 사회의 배경과 풍습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가부장제 역시 남성들이 만든 일종의 사슬과 같이 여성들을 지배 구속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풍습에 힘입어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혐오와 여성 비하적인 편견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당시 베니스 사회의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성들은 오직 남성들에게 종속되어 순종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오셀로는 극 초반에서는 전도유망한 강직한 군인의 모습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타자로서의 자의식과 여성혐오로 결국 동물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오셀로는 이아고가 복수를 위해 꾸민 계략에 쉽게 넘어가고 분별력이 떨어지면서 아내에 대한 진심이 어느 순간 의치증으로 변하면서 견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는 데스테모나를 향해 여성혐오적인 무차별적인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는 등 야만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인물로 전락하게 된다. 데스테모나는 가부장제도의 현실 속에서 백인여성과 흑인남성의 결혼을 용납할

수 없었던 당시 베니스 사회에서 가부장적 권위를 추구하는 아버지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하는 가부장 사회 속의 타자로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 주체성을 상실하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정체성이 변화하면서 억울한 죽음의 주체가 된다.

결과적으로 오셀로는 베니스 사회에서 전도유명한 강직한 무어인이지만 타자로서 그를 향한 인종 편견과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타자로서의 자의식과 여성혐오로 인해 결국 비극을 맞이한다. 데스데모나는 능동적으로 행동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결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였지만 여성의 주체적 정체성을 인정하려하지 않는 당시 베니스 사회의 현실 속에서 그녀의 행동은 타자로서의 비극을 초래한다. 결국 그들이 맞이하는 비극은 단순히 그들의 성격적인 특성으로만 기인한 것이 아닌 인종 편견과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가부장제도 등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요소와 상황이 작용한 비극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셰익스피어는 『오셀로』에 나타난 주인공인 오셀로와 데스데모나를 타자의 입장에서 이들의 자의식과 저항의식을 통해 베니스 사회의 전반적인 편견과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 목 차

I. 서 론 .....	1
II. 인종 편견과 가부장 사회 .....	6
III. 오셀로의 자의식과 여성혐오 .....	17
IV. 데스데모나의 여성의 정체성 .....	30
V. 결 론 .....	42
BIBLIOGRAPHY .....	45
ABSTRACT .....	49

## I. 서론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시대는 영국 역사상 불완전하고 엄청난 격변기의 시대이다. 중세 봉건체제가 무너지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회의가 생겨나면서 우주관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신분계급의 구조와 사회·경제 구조가 변화하고, 전통적인 가치관과 고정관념에 대한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등 혼란과 발전을 거듭한다. 또한 침묵과 복종을 강요당하는 여성의 지위에 대해 새로운 가치가 대두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러한 르네상스라는 사회적인 특징과 당대 영국 사회의 특별한 상황에서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복잡한 극적 구조와 주제 그리고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인간 본성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한다. 그러한 것을 통해 관객들은 작품 속 주인공이 느끼는 혼란과 갈등, 내면에 잠재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성격적인 결함들을 찾아내어 함께 공유하게 된다.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들은 개인의 성격적인 결함 외에도 인종 편견, 가부장제, 여성혐오 등과 같은 당시 사회적인 이념들과 정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셰익스피어의 대표적 작품인 『오셀로』(*Othello*)는 다른 비극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작품은 베니스 사회에서 실제로 외국용병을 국가 방위에 이용했던 1570년대를 배경으로 작품의 소재를 다루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에서 가장 단순한 극으로 평가받고 있는 『오셀로』는 우주나 국가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왕과 왕자가 등장하고 마녀나 유령이 출몰하는 등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담고 있는 다른 비극들과 달리, 『오셀로』는 베니스(Venice)와 사이프러스(Cyprus)라는 좁은 무대를 배경으로 일상적인 가정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극적 상황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1604년 처음으로 상연된 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 극이 관객에게 주는 의미는 시대 및 학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오셀로』는 오늘날까지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셀로』는 “짠맛도 풍미도 없는 피비린내 나는 웃음거리(a Bloody Farce, without salt or savour)<sup>1)</sup>”라고 혹평을 받기도 하고, “가장 신나게 재미있고 또 가장 끔찍한”(the most painfully exciting and the most terrible)<sup>2)</sup> 인상을 준다. 『오셀로』의 우수성은 등장인물들의 개성과 활력, 인물들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과 플롯의 명료성과 집중성에 있고, 또한 오셀로(Othello)가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오셀로』의 비극적 우수성이 높게 평가되기도 한다.<sup>3)</sup>

이 작품의 배경이 된 베니스는 개방된 사회로 일찍이 서구에서 상업사회로 자리 잡은 도시 국가 중 하나이다. 베니스 사회는 타인종간의 결혼을 통해서 백인 우월주의와 가부장제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양면적인 사회로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소는 오셀로와 데스테모나(Desdemona)의 성격적 결함과 함께 그들을 비극으로 몰고 가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오셀로』는 인종적 타자로서 오셀로가 겪게 되는 인종 편견과 여성혐오 그리고 가부장 사회 속의 타자인 데스테모나의 정체성의 변화를 통해 비극을 맞이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그들의 성격적인 결함은 인종 편견이나 가부장제라는 당시 베니스의 사회적인 요인들과 함께 타자로서의 오셀로와 데스테모나를 비극으로 이끌어간다. 셀던(Raman Seldem)은 타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아닌 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면서, 타자라는 존재는 우리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우리 아닌 모든 주변인들과 이방인들로 규정하고, 이들을 악마화하고 객관화 한다”<sup>4)</sup>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인종 편견과 가부장제라는 사회적 요인은 이방인과 주변인을 타자로 인식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들은 각각 인종적 타자와 가부장제하의 타자로 객관화됨으로써 사회적 탄압과 위협의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된다.

『오셀로』에서 이아고(Iago)와 로더리고(Roderigo) 그리고 브라반시오

1) F. R. Leavis. “Diabolical Intellect and the Noble Hero.” *Shakespeare: Othello*, Ed. John Wain (London: Macmillan, 1994). p. 120.

2) Thomas Rymer. “From a Short View of Tragedy.” *Othello: Shakespearean Criticism* Vol. 4. Ed. Mark W. Scott (Detroit: Gale Research, 1987). p. 380.

3) Harley K. Grancille-Barker. *Préfaces to Shakespeare*, Vol. 2. (New York: Princeton UP, 1978). p. 10.

4) Raman Selden and Widdowson Peter. *A Reader's Guide to Contemporary Literary Theory*. (New York: Harvester, 1993). p. 164.



(Brabantio)는 오셀로를 향해 인종 편견의 시선으로 오셀로와 데스테모나의 결혼 사실에 대해 부정적이다. 하지만 오셀로는 자신이 왕가의 혈통을 이어 받았으므로 데스테모나와 결혼 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이들 사이의 갈등이 비극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암시함으로써 보다 극적인 의미를 띠게 된다.<sup>5)</sup> 또한 오셀로는 자신이 비록 흑인이지만 자신이 세운 공로로 베니스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인종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그의 자신감은 타 인종에게 너무나도 배타적이었던 베니스 사회와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 오셀로는 베니스 사회의 인종적 타자로 존재할 뿐이다.

오셀로와 데스테모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야고는 오셀로가 자신을 부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복수의 대상으로 과장 확대함으로써 비극적 상황을 이끌어내는 인물이다. 또한 당시 베니스 사회의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대표적으로 대변하는 악인으로, 전통적인 사회질서를 거부하고, 자기 개인의 감정과 성공을 위해 타인을 파멸시키고 불행에 몰아넣는 인물이다. 이러한 이야고의 개인주의는 전통적인 질서를 신봉하는 다른 인물들에게 전염되어, 그들 내부에 숨어있는 야누스적인 모순을 끌어내어 스스로 자신들을 파멸케 한다.<sup>6)</sup> 콜리지(S. T. Coleridge)는 오셀로를 파멸로 이끈 이야고를 “동기 없는 악의”(motiveless malignity)를 가진 단순히 파괴적이면서 어리석고 부주의한 인간으로 표현한다.<sup>7)</sup> 이러한 이야고의 계략은 현대사회에서 볼 때도 누구든지 빠져들 수밖에 없는 갈등을 낳게 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야고의 계략을 단순히 파괴적인 부주의만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오셀로의 질투심만으로 비극적 결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셀로를 향한 인종 편견의 시선과 그의 복합적인 성격이 오셀로 자신의 인간성을 혼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함으로써 내면세계의 갈등에 의한 비극의 문제이지, 이야고의 계략에 의한 음모의 비극만으로 보기에 는 단순한 혐오감 이상을 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데스테모나의 입장에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행동은 오셀로와의

5) 이덕수. 『비극적 갈등양식과 셰익스피어의 비극』. 서울: 형설출판사, 1995. p. 225.

6) 강석주. 『셰익스피어 문학의 현대적 의미』. 서울: 동인, 2007. p. 171.

7) S. T. Coleridge. “Notes on the Tragedies of Shakespeare: *Othello*.” *Shakespearean Criticism*. (New York: Dutton. 1960). p. 43.

결혼에서부터 시작한다. 데스테모나가 아버지의 허락 없이 결혼을 강행한 것은 당시의 사회적 흐름에 역행한 것이고, 이러한 그녀의 불복종의 행위는 가부장 사회 속의 타자가 되어 앞으로 일어날 극의 비극성을 예고한다. 사실 오셀로와 데스테모나의 흑백간의 결혼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양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들의 결혼은 인종을 뛰어넘은 것으로 이들의 결합이 모든 인종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이들의 사랑과 결혼은 셰익스피어가 활동하던 시대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여전히 과격적이며 이러한 결혼은 사회의 규범을 뛰어넘은 것이다<sup>8)</sup>. 또 한편으로 베니스 사회에서 흑인 무어인 오셀로와 백인 데스테모나와의 결합은 전체적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sup>9)</sup> 그렇지만 당시 사회적 상황을 감안하면 이 둘의 사랑과 결혼은 결국 베니스 사회의 무질서와 부조화를 낳게 되고 결국 지배계급이 쌓아놓은 이데올로기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 극의 전체적인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이 극의 중심 갈등이 단순한 흑백간의 갈등 혹은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이 아니라 백인 가부장제 사회와 인종주의에 대한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의 위협이기도 하다.<sup>10)</sup> 이와 같이 오셀로와 데스테모나의 결혼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의 결합이 아닌 인종과 계급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지금까지 『오셀로』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는 주로 주제를 선과 악의 대립으로 보고 오셀로와 이아고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대부분의 비평도 비록 견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남성중심의 전통적인 비평이었다는 공통적인 분모를 갖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 활발히 전개되는 페미니스트 비평과 신역사주의의 비평은 전통적인 남성 중심적 비평을 비판하면서 남성인물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새로운 시각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셀로』 연구에서 등장인물들이 맞이하는 비극은 단순히 등장인물들의 성격적 결함 뿐만 아니라 인종 편견과 여성성의 문제 그리고 가부장제도라는 사회적인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8) Kiernan Ryan. *Shakespeare*. (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1989). p. 55.

9) Edward Washington. "At the Door of Truth: The Hollowness of Signs in Othello" *Othello: New Essays by Black Writers*. Ed. Mythili Kaul. (Washington, DC: Howard UP, 1996). p. 173.

10) Ania Loomba. "Othello and the Racial Question" *Oxford Shakespeare Topics Shakespeare, Race, and Colonialism*. Eds. Peter Holland and Stanley Wells. (New York: Oxford UP, 2002). p. 45.

본 논문은 기존 전통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오늘날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신역사주의와 페미니스트 비평에 입각하여 『오셀로』에 나타난 베니스 사회의 인종 편견과 가부장제도 등 사회적 요인들이 등장인물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베니스 사회에 만연 했던 인종 편견과 가부장 사회를 살펴보며 그 시대에 흑인 무어인들과 여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 할 것이다. 3장에서는 전도유망한 강직한 군인 오셀로가 베니스 사회에서 인종적 타자로서 경험하는 자의식과 여성혐오로 인해 분별력이 흐려지고 결국 비극을 맞이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가부장제와 여성혐오의 상황에서도 타자로서의 데스데모나가 추구하는 여성의 정체성이 결과적으로 사회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비극적 결말로 이어지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II. 인종 편견과 가부장 사회

엘리자베스시대의 인종에 대한 편견과 가부장제는 셰익스피어가 그의 비극의 주인공들 특히 『오셀로』 작품의 오셀로의 성격을 규정하고 데스테모나의 정체성의 변화를 묘사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작품이 쓰인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는 많은 흑인들이 영국에 살았다. 이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1596년과 1601년에 발표한 흑인 추방 명령으로도 입증 가능하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우리’ 백성들 즉 백인과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들’ 흑인들과 비 기독교인들을 영국에서 추방할 것을 명령한다.<sup>11)</sup> 흑인은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국가에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며 경제적으로도 백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두려움의 존재로 본다. 또한 16세기까지 검정색이 오염과 더러움, 사악함 등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sup>12)</sup> 그리고 기독교 이전 시대에서도 검정색은 서구 문학에서 악의 징표로 사용된다. 또한 흑인 무어인들은 개종을 강요당하고 개종하지 않는 자는 노예가 되는 등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탄압을 받는다. 기독교인들의 탄압에 무어인들은 그들 스스로 저항을 하거나 터키인들과 합세를 하고 이슬람 국가로 피신한다. 무어인들이 개종을 한다고 할지언정 그들은 언어적으로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 무지하였고 그들의 신앙 또한 의심을 받으며 결국 이교도로 간주된다.

셰익스피어의 영국사회는 또한 가부장제 사회로 여성에게 바람직한 미덕이란 수동적인 침묵과 정숙이다.<sup>13)</sup> 이 시대의 중상류층 여성들은 개인의 개성, 감정, 의견은 존중 받지 못하고 오로지 가문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 이는 상하 위계질

11) Karen Newman. "And Wash the Ethiop White," *Femininity and the Monstrous in Othello*, Eds. Jean Howard and Marion F. O'Connor (New York: Methuen, 1987). p. 129.

12) Anian Loomba. *Race and Renaissance Drama Manchester*: Manchester UP, 1989. "Sexuality and Racial Difference," *Critical Essays on Shakespeare's Othello*. Ed. Anthony Gerald Barthelmy. (New York: G. K. Hall, 1994). p. 167.

13) 이용은. 「맥베스 부인의 몸 이미지와 의미한계」, 『셰익스피어 비평』 36.1 (2000). p. 57.

서를 기반으로 하는 가부장제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축이고, 남성들은 여성의 복종과 정절, 침묵 속에서 그들의 힘을 지탱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부장제도 틀 안에서 부모의 통제하에 결혼을 하고 배우자에 대한 선택권도 없다. 여성에 대한 결혼관은 ‘부모에게서 남편으로’였으므로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삶을 살아야만 한다. 당시의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란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가부장제의 폐쇄성은 주체성을 가진 여성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체계가 아니라 여성의 자아실현을 막고 여성을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만을 담당하는 존재로 보며, 인격체로서의 여성의 존엄성도 무시한다.

엘리자베스시대의 영국 사회의 여성관을 배경으로 하는 『오셀로』에 나타난 베니스 사회의 가부장제는 여성에게 있어 최고의 덕목이 순결과 인내심 그리고 남성에게 대한 순종으로 규정짓는다. 욕망을 드러내지 않는 여성은 성모 마리아와 같은 정숙한 여성으로 찬양받지만,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거나 쾌락을 추구하는 여성은 인류의 파멸에 기인한 이브(Eve)처럼 음탕하다고 비난받는다. 당시 베니스 사회의 남성은 창녀로 묘사되는 여성을 성적인 배신자로 간주하고 질투와 분노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으며 때로는 여성에 대한 살해 욕망을 비추기도 하였다. 실제로 엘리자베스(Elizabethan) 시대와 제임스 1세 시대(Jacobean)의 대다수의 연극들은 부인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극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극을 보는 남성 관객들은 무의식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혐오감에 휩싸이기도 하며 여성관객들은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가부장제에 복종하게 된다.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오셀로』 작품 속에서 베니스의 상황으로 옮겨놓는다. 베니스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종 편견이 심하여 많은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아래 강요와 탄압을 받는다. 특히 흑인은 국가에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경제적으로도 백인의 일자리를 빼앗은 존재로 인식된다. 또한 무어인들은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강요와 탄압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인종 편견과 차별이 매우 심하다. 또한 이 시대의 가부장제는 당시 사회의 배경과 풍습들을 전반적으로 잘 나타내는 것으로 남성들이 만든 일종의 사슬로 여성들을

14) Gayle Greene. "This That you Call Love: Sexual and Social Tragedy in Othello." *Shakespeare and Gender: A History*. Eds. Deborah E. Barker and Ivo Kamps. (London: Verso, 1995). p. 56.

구속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과 풍습에 힘입어 남성들로 인한 여성혐오와 여성 비하적인 인식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당시 베니스 사회의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직 남성들에게 종속되어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인종 편견과 가부장제의 사회에서 타 인종에 대한 편견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오셀로』에 나타난 인종편견에 대해 베니스 사회의 이야기와 브라반시오, 로드리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셀로』에서의 인종 편견은 당시 베니스 사회가 자신들과는 다른 인종, 특히 피부가 검은 무어인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을 간직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인종편견에 대한 인식은 권위적인 데스테모나의 아버지 브라반시오, 오셀로를 파멸로 이끈 이야기, 그리고 타락한 베니스 사회의 대변자인 로드리고를 통해 드러난다. 이들 가운데 오셀로에 대한 인종편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종편견에 대한 인식을 초지일관 철저하게 보여주는 인물은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오셀로를 인종적으로 가장 멸시하며, 오셀로를 “늙어빠진 검은 양 한 마리”(an old black ram)(1.1.89)로 표현하고 브라반시오의 딸을 “흰 양”(white ewe)(1.1.90)으로 표현하면서 검은 양이 흰 양을 덮치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한다. 로드리고는 초반에 오셀로를 “그 입술 두터운 녀석 복도 많지 / 뭔가 뜻대로만 된다면!”(What a full fortune does the thick-lips owe, / If he can carry it thus!)(1.1.66-67)이라고 표현하며 인종적으로 그를 비하한다. 이것은 타 인종에 대한 베니스 사회의 강한 인종 차별 의식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야기는 캐시오에 대해서도 반감을 갖고 있는데 그가 비록 피부가 검은 무어인은 아니지만 플로렌스 출신이고 자신의 부관자리를 대신 꿰찼다 생각하며 그를 시기하고 미워한다.

이야고 : 그 부관이라는 자가 누군지 알겠소?

플로렌스 출신인 마이클 캐시오라는 놈인데,

정말이지, 기가 막힌 이론가이랍니다.

예쁜 계집하고 놀아나다가 망조가 든 놈인데,

싸움터에서 분대 한번 제대로 지휘해본 적도 없고  
 전투 작전이나 용병술은 전혀 몰라 계집보다 나은 게 없는 위인이죠,  
 탁상공론이나 할 뿐,  
 토가를 걸친 의원들처럼 말이나 뻔질나게 하는 놈이죠,  
 실전은 전혀 모르면서 주둥이나 나불대는 게  
 놈의 군대 경력 전부죠.

IAGO : What was he?

Forsooth, a great arithmetician,  
 One Michael Cassio, a Florentine,  
 A fellow almost damn'd in a fair wife;  
 That never set a squadron in the field,  
 Nor the division of a battle knows  
 More than a spinster; unless the bookish theoretic,  
 Wherein the toged consuls can propose  
 As masterly as he: mere prattle, without practice,  
 Is all his soldiership. (1.1.18-27)

이아가가 캐시오를 자신보다 훨씬 무능하고 뒤처지는 군인이라는 이와 같은 지적은 베니스 출신이 아니라 플로렌스 출신을 무어인과 같은 이방인으로 폄하함으로써 경쟁에서 패한 사실을 합리화한다. 또한 이아고는 탁상공론이나 할 뿐, 토가를 걸친 의원들처럼 말이나 뻔질나게 하고 실전은 전혀 모르면서 주둥이나 나불대는 것이 군대 경력 전부라며 캐시오를 비난한다. 이방인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이러한 이아고의 행동의 근원은 베니스라는 자기 나라에서 타국 출신이 자기보다 높고 나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데에 대한 열등감으로부터 표출된 불만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이처럼 이아고는 캐시오에게 심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관인 오셀로에 대해서도 충성심이나 신뢰감이 없다. 이아고의 내면에는 오셀로가 인종이 다르고 또한 이방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편견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 오셀로에 대한 이아고의 감정은 늘 비판적이고 무시하며 불신이 가득하다.

이아고는 특히 데스데모나와 관련해서 브라반시오에게 인종 편견을 상기시키

15) 박동권. 『오셀로의 비극적 요인: 타인종에 대한 편견』. 『영어영문학21』 51.1 (2009). p. 220.

면서 무어인 오셀로를 비난한다.

이아고 : 아이고! 딸을 도둑맞으셨습니다. 창피하니 옷을 입으시죠.  
의원님 심장을 터져 버릴 겁니다. 영혼의 절반인 따님을 잃어버렸죠.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한 마리 늙은 검은 숫양이  
의원님의 하얀 암양을 덮치고 있습니다. 일어나요, 빨리!  
종을 울려 곤하게 잠든 사람들을 깨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악마가 당신 외손자를 낳게 될 겁니다.  
어서 일어나시라니까요!

IAGO : 'Zounds! sir, you're robb'd; for shame, put on your gown;  
Your heart is burst, you have lost half your soul;  
Even now, now, very now, an old black ram  
Is tugging our white ewe. Arise, arise!  
Awake the snorting citizens with the bell,  
Or else the devil will make a gradsire of you. (1.1.87-91)

이아고는 데스테모나를 하얀 암양에 비유한데 반해 오셀로를 검은 숫양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러한 흰색과 검은색의 대립은 르네상스 당시의 인종 편견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또한 이아고는 딸을 오셀로에게서 도둑맞았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오셀로를 악마라고 표현하며 오셀로에 대해 거침없는 표현을 하며 그가 갖고 있는 인종 편견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아고는 더 나아가 브라반시오에게 오셀로를 악마라고 칭하며 데스테모나가 말과 교접을 하게 될 것이고 손자들이 말처럼 울고, 경주용 말이 조카가 된다는 표현을 거침없이 쏟아 붓는다.

이아고 : 저런, 의원님께서서는 악마가 권한다면 하느님을 저버릴 분이시군요. 의원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왔는데 저희를 불한당 취급하시다니요. 의원님의 따님이 바르바리 말과 교접을 하게 될 겁니다. 의원님 손자들이 말처럼 울 것이고, 커다란 경주용 말을 조카가 되고, 작은 스페인 말들은 가까운 친척이 될 것입니다.

16) 박동권, p. 217.



브라반시오 : 상스런 말을 하는 비열한 네놈은 누구냐?

이아고 : 저는 의원님 따님과 무어인이 두 개의 등을 가진 짐승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IAGO: Zounds, sir; you are one of those that will not serve God if the devil bid you. Because we come to do you service and you think we are ruffians, you'll have your daughter covered with a Barbary horse, you'll have your nephews neigh to you, you'll have coursers for cousins, and jennets for germans.

BRABANTIO: What profane wretch are thou?

IAGO: I am one, sir, that comes to tell you your daughter and the Moor are now making the beast with two backs.

(1.1.109-16)

이아고는 성적인 이미지와 인종 편견이 가득한 말들로 이처럼 오셀로를 폄하하고 있다. 16-17세기의 영국인들은 흑백간의 결혼에 대한 편견이 가미된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백인과 흑인의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검은 피부를 갖게 되고 이는 흑인성이 백인 배우자까지 내적으로 검게 만들어 버리는 증거로 간주한다.<sup>17)</sup> 이아고는 경멸조로 오셀로를 비하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타자인 오셀로는 베니스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그의 표현은 베니스 사회의 만연했던 인종 편견과 성적 차별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아고는 데스테모나를 사모하는 로더리고를 자극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로더리고는 브라반시오에게 데스테모나가 온 세상이 잠든 한밤중에 누구에게나 품을 파는 곤돌라의 뱃사공 한 사람만을 데리고 나가 음탕한 무어인의 품에 흥취하게 안겨 있다고 비난한다. 이것은 그의 내면에 인종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이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데스테모나가 허락도 없이 망측한 탈선을 저지르고 있으며 여기저기를 정처 없이 떠도는 이방인에게 도리를 망각하고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성과 운명까지도 몽땅

17) Newman. *Feminity and the Monstrous in Othello*. p. 132.

바쳤다고 브라반시오에게 고백한다. 이와 같은 로더리고의 주장은 데스테모나가 자신의 청혼을 거절하고 인종과 국적이 다른 이방인인 오셀로와 사랑에 빠져 결혼한 것에 대해 많은 치욕감과 열등감을 반영한다.

인종 편견의 극단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은 브라반시오이다. 브라반시오는 자신의 딸인 데스테모나가 흑인 무어인과의 결혼에 분노하며 쏟아내는 항변은 인종 편견에 대한 그의 불합리한 인식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브라반시오 : 너 흉측한 도적놈! 내 딸을 훔쳐 어디에 감췄느냐?

천하에 저주받을 놈. 내 딸을 호리다니.

분별 있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물어 보아라.

.....

이 아버지의 슬하를 벗어나, 기쁘기는커녕 소름만 끼치는

네 놈의 그 시꺼먼 가슴으로 뛰어들 리가 있겠느냐?

사람들에게 한 번 물어보아라. 그게 뻔한 일이 아닌가?

네 놈이 그 애에게 사악한 마술을 걸어,

정신을 호리게 하는 약이나 광천수 따위를 먹여서,

마음 여린 그 어린 것을 피어 낸 것이 아닌가.

BRABANTIO: O thou foul thief! Where hast enchanted her,  
Damned as thou art, thou hast enchanted her,  
For I'll refer me to all things of sense,

.....

Run from her guardage to the sooty bosom

Of such a thing as thou; to fear, not to delight.

Judge me the world, if 'tis not gross in sense

That thou hast practis'd on her with foul charms,

Abus'd her delicate youth with drugs or minerals

That weaken motion; I'll have't disputed on;

'Tis probable, and palpable to thinking. (1.2.62-76)

브라반시오는 피부색이 다른 무어인 오셀로를 가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자신의 딸이 흑인 무어인을 남편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오셀로가 마술을 걸고 약을 먹여 결혼을 감행했다고 믿는다. 이처럼 그는 당시 인종 편

견이 만연했던 베니스 사회에서 오셀로가 자신의 딸과 결혼한 것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반응을 보이며 흑인 무어인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브라반시오의 데스테모나의 결혼에 대한 갈등은 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한다. 브라반시오는 자신의 딸이 오셀로와의 결혼에 대해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격분하여 경고를 하지만 데스테모나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당당히 표현한다. 그녀는 아버지를 향해 두 가지 의무를 역설한다. 첫째는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를, 둘째는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섬김으로, 오셀로와의 결혼 의지를 당당하게 표현하며 주체적인 정체성을 가진 여성임을 강조한다. 이처럼 그녀는 아버지 브라반시오를 향해 부모와 남편에 대한 의무가 서로 다를 것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내세워 말하기 보다는 이성적인 설명을 통해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 브라반시오를 설득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데스테모나는 강인한 주체의식을 갖고 있으며 수동적인 여성이 아닌 자신의 삶을 독자적으로 추구하는 능동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하지만 주인, 의무라는 데스테모나의 표현들과 결혼 전에는 아버지를, 결혼 후에는 남편을 섬기겠다는 말에서 그녀 또한 당시 베니스 사회의 가부장제의 가치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그린(Gayle Greene)은 데스테모나가 아버지와 오셀로에 대한 의무는 지키면서 정작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의무는 소홀히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sup>18)</sup>

브라반시오는 자신에게 종속되어 있던 딸이 허락도 없이 흑인 무어인 남편을 선택한 것에 대해 당시의 가부장제의 사회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역이기 때문에 더욱 더 분노한다. 당시의 베니스 사회에서 가부장제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버지 브라반시오에게 딸이 이방인 오셀로와의 결혼은 엄청난 충격이다.

브라반시오 : 네 멋대로 해라! 전 할 말이 없습니다.

공작각하, 팬찮으시다면 이제 국사를 논하시죠.

자식을 낳느니 차라리 얻어 기르는 편이 낫겠군.

무어 장군, 이리 오시오.

당신이 내 딸을 이미 취한 것이 아니라면,

18) Greene. *Shakespeare and Gender: A History*. p. 49.

내 단호하게 거절하겠지만, 기왕 이렇게 된 이상,  
기꺼이 당신에게 내 딸을 주겠소. 소중한 것,  
너 때문에 딴 자식이 없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딸년이 도망가니 마음이 사나워져  
애들에게 족쇄라도 채우고 싶구나. 다 끝났습니다, 공작님.

BRABANTIO: God bu'y! I have done.

Please it your grace, on to the state affairs.

I had rather to adopt a child than get it.

Come hither, Moor:

I here do give thee that with all my heart

Which, but thou hast already, with all my heart

I would keep from thee. For your sake, jewel,

I am glad at soul I have no other child,

For thy escape would teach me tyranny

To hang clogs on them.

I have done, my lord. (1.3.187-96)

브라반시오는 자신을 속인 딸의 행동에 대해 분노를 표출함과 동시에 그동안 딸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이었다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가부장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권위를 보여준다. 가부장제는 여성을 남성과 동일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비주체적이며 종속적인 개체로 치부하는데서 기인한다.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해야 마땅한 존재로 여기며 가정 안에서의 남성의 위치는 신적인 존재로 파악한다.<sup>19)</sup> 브라반시오는 자신의 딸을 오셀로에게 넘기겠다고 하는데 이는 결혼을 통해 딸에 대한 소유권이 남편에게로 넘어가는 당시의 가부장제에 대한 관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즉, 자신의 딸의 주체성을 부인하고 단지 교환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야고의 계략은 인종적으로 오셀로를 비하하는데서 시작한다. 오셀로를 인종적으로 비하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이야고는 오셀로의 내면적인 갈등을 교묘하게 파악하면서 자신의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오셀로의 열등감을 이용하여

19) L. Woodbridge. *Women and the English Renaissance: Literature and the Nature of Womenkind 1540-1620*. (Urbana: Illinois UP, 1986). p. 129.

자신의 탓에 걸려들게 만든다. 이러한 이아고의 계략은 오셀로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열등감이 되살아나는데 한몫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오셀로는 타자로서의 자의식을 드러내며 결국 이아고의 계략에 넘어가게 된다.

이아고 : 같은 나라 사람에, 피부색도 같고, 신분도 비슷한  
수많은 구혼자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그들의 구혼을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런 일이겠죠.  
참! 그런 사람에게선 뭔가 추잡하고 음탕한 냄새가 나죠.  
본래의 모습에 어긋나고, 생각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하지만 용서하십시오. 저는 부인에 대해  
뭔가를 분명히 말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요.

IAGO: Not to affect many proposed matches  
Of her own clime, complexion, and degree,  
Whereto, we see, in all things nature tends-  
Foh! one may smell, in such, a will most rank,  
Foul disproportion, thoughts unnatural.  
But pardon me: I do not in position  
Distinctly speak of her; though I may fear  
Her will, recoiling to her better judgement,  
May fall to match you with her country forms,  
And happily repent. (3.3.231-39)

오셀로가 인정받고 용감하고 강인한 장군이라 하지만 테스데모나와의 결혼은 베니스 사회에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종 편견은 이 극을 비극적인 결말로 이끄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타 인종에게 배타적인 사회적 배경이 흑인 오셀로를 베니스 사회 속에 완전히 수용해 주지 않는 데서 비극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오셀로와 브라반시오, 이아고는 가부장적 사고를 지닌 인물로 여성을 소유물로 보며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하고 정절을 지키며 침묵해야 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테스데모나의 정절을 의심하게 하는 결정적 장치로 등장하는 손수건은 여성을 소유물로 보는 가부장제의 시각을 여실히 보여준다.<sup>20)</sup> 당시 베니스 사회의 가부

20) Newman. "And Wash the Ethiop White: Fertility and the Monstrous in Othello." *Critical Essays on Shakespeare's Othello*, Ed. Anthony Gerald Barthelemy. (New York: G. K. Hall, 1994). p. 61.

장제의 틀을 깨며 타자로서 주체적인 정체성을 보여주었던 데스테모나는 사회적으로 금기시한 흑백간의 결혼을 감행했다. 하지만 당시 베니스 사회의 인종 편견과 가부장제를 초월한 데스테모나의 노력은 베니스 사회 속의 편견을 지닌 이아고의 계략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힌다. 여성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개체성을 갖을 수 없는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데스테모나는 그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 가부장 사회 속의 타자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열망이 가부장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흑인이기에 데스테모나의 선택은 더욱 더 강력하며 위협적인 사회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오셀로』에 나타난 베니스 사회의 인종 편견과 가부장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흑인 무어인들은 극 속에서 악마와 같은 존재로 대부분 혐오스럽게 그려지고 있고, 당시 사회의 인종 편견은 자신들과 다른 인종, 특히 피부가 검은 무어인에 대해 거부감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들은 가부장 사회 속에서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복종하며, 인격체로서의 여성의 존엄성은 무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종이 다르면 당시 사회에서 인종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삶을 살아야 했고, 여성들 역시 가부장 사회 속에서 지배와 억압 속의 삶을 사는 등 주변인으로서의 타자들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다.

### Ⅲ. 오셀로의 자의식과 여성혐오

오셀로는 베니스 사회에서 외국인이자 이방인으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오셀로는 베니스 시민으로서 당당히 인정받지는 못한다. 당시 베니스 사회에서 아무리 공로가 크다고 할지라도 깊게 뿌리내린 인종 편견과 차별의 벽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오셀로는 자신을 향한 인종 편견으로 본인의 피부색이 검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방인으로서의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오셀로는 그러한 열등감을 피하기 위해 타자로서의 자의식을 드러내며 베니스 사회의 여성혐오적인 인식을 수용하기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열등감이나 과도하게 보상된 열등감이 있으면 인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sup>21)</sup> 주인공 오셀로의 경우에 민족, 문화, 연령 및 피부색 또는 인종적 차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주인공 오셀로의 성격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성격적 특성들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며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될 경우 이성이 무너질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특성이다. 자의식은 철학적 의미로서 경험의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에 수반하여 그것을 통일하는 자기(self)에 관하여 갖는 반성의식의 총칭을 말한다.<sup>22)</sup> 반면, 심리학적 의미로서의 자의식은 자신이 타인에게 심어주는 인상, 즉 고유한 행동이나 외모, 속성 등에 지나친 관심과 극심한 감수성으로, 인간 생활 중 외부적 상황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여러 의식과 대립하여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기중심적인 의식을 말한다. 즉, 자아가 외부적 조건이나 자기 이외의 어떤 타인도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sup>23)</sup> 오셀로는 자신을 향한 인종 편견의 시선에 대립하여 내면에서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

21) A. Adler. 윤성규 역. 『성격심리학』 (*Individual Psychology*). 서울: 지식여행, 2012. p. 265.

22) 김익달. 『철학 대사전』. 대구: 학원사, 1963, p. 939.

23) 오병기. 「1930년대 한국 심리 소설의 자의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0. p. 19.

을 하는 등 타자로서의 자의식을 드러내게 된다.

중세시대의 여성혐오는 르네상스 시대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억눌려 있었고, 이 시기에 여성혐오는 지배담론의 지위는 상실했지만 16, 17세기 텍스트들의 여성에 대한 토론에 의해 당시의 문화 속에 온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여성혐오의 텍스트들이 계속해서 생산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여성에 대한 견해가 불안정했음을 보여준다.<sup>24)</sup> 남성들에 의한 여성혐오 담론은 중세시대에 더욱 노골적으로 표출되던 것으로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오면서 다소 억제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분명 당시 사회의 인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여성혐오 담론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를 계속 구축해 오고 있다. 오셀로는 자신을 향한 인종 편견의 시선에 열등감을 갖게 되고 이는 여성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며 결국 오셀로는 동물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오셀로의 이러한 동물적인 모습은 이아고의 오셀로에 대한 음모와 계락을 통해서 그 모습이 드러난다. 램킨(Norman Rabkin)은 오셀로가 이아고의 유혹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게 됐는지에 대해 하일만(Robert Heilman)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한 가지 견해에 따르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즉, 오셀로는 단지 “믿을만한 비방가의 관습에 의해서” 이아고를 믿고 있다. 인물 분석가들 중에서, 이전의 관례는 오셀로가 이아고의 희생자이며 시종일관 매우 “고결한 무어인”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즉 그는 단지 너무 순수하거나 바보스럽거나, 아니면 단순하거나, 남을 잘 믿거나, 그도 아니면 평상시의 자기 통제력을 잃었다는 점에서 잘못을 범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인물에 대한 다른 주요한 접근법에 따르면, 오셀로는 결코 “고결한 무어인”이 아니라 그의 몰락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성격적 결함, 즉 현실에서 기인한 상습적인 다툼이나 자만심과 같은 결함들을 갖고 있을 뿐이다.<sup>25)</sup>

24) Valerie Wayne. “Historical Differences: Misogyny and Othello.” *The Matter of Difference*. (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1991). p. 156.

25) Norman Rabkin. *Shakespeare and the Common Understanding* (Chicago: Chicago UP, 1967). p. 61.



이러한 견해는 오셀로의 비극성의 요인에 대해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오셀로는 이야고의 계략에 의한 희생자이며 시종일관 고결한 무어인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즉, 그는 단지 너무 단순하거나, 남을 잘 믿거나, 아니면 정상시의 자기 통제력을 잃었다는 점에서 잘못을 범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른 비평가들은 오셀로는 고결한 무어인이 아니라 그의 파멸 원인이 되는 심각한 성격적 결함, 즉 현실에 기인한 상습적인 다툼이나 자만심과 같은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오셀로는 이야고의 계략에 넘어가 폭력적이고 여성 혐오적 자아로 변모한다. 오셀로는 아내 데스테모나에게 “악마”(Devil)(4.1.234), “발정 난 염소나 원숭이처럼 음탕한 년!”(Goats and monkeys!)(4.1.254), “뻔뻔한 매춘부!(Impudent strumpt!)(4.2.79)라고 하는 등 저속하고 거친 표현 그리고 폭력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이 시대에 여성에 대한 혐오가 하나의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당시 사회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베니스는 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동양을 잇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무역의 중요한 연결지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베니스의 여건이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을 유입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당시의 도시국가들에서는 지배계층의 여성 순결을 중요시하면서 암암리에 매춘이라는 제도가 유포되어 있었는데, 당시 베니스는 유럽의 쾌락 중심지로, 특히 성적으로 관용이 허용되는 곳으로 인식되었고, 이곳의 매춘부들은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매춘부들은 일반 귀부인들과 그 외모나 행동 면에서 구분되지 않았다.<sup>26)</sup> 여기에서 문제는 당시 베니스 사회가 자유로운 매춘행위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여성의 순결을 우선시여기고 여성의 성을 통제하려는 가부장제의 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들을 왜곡된 잣대로 보게 된다.

오셀로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고귀함과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베니스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인종 편견을 뛰어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다. 오셀로의 삶은 그가 베니스에서 장군으로써의 출중한 능력을 보임으로써 한편으로는 백인들에게

26) E. A. J. Honigmann. Ed. “Introduction.” *The Arden Shakespeare: Othello*. (London: Thomas Nelson & Sons Ltd, 1997). p. 9.

매력적인 점을 각인시키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 주게 된다. 오셀로는 데스테모나를 유혹시킨 힘이 본인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본인 스스로를 백인의 가치관에 편입시키며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착각한다. 사이프로스에서의 첫날밤에 벌어진 난동에 오셀로는 몬타노와 카시오에게 터키인과 같은 야만스러운 행동으로 비하하며 기독교인의 수치임을 강조한다.

오셀로 : 우리가 터키인으로 둔갑하여 스스로  
하늘이 터키인에게 금한 일을 하려는가?  
이 야만 소동을 그만둬라, 기독교의 창피다.

OTHELLO: Are we tun'd Turks, and to ourselves do that  
Which heaven has forbid the Ottomites?  
For Christian shame, put by this barbarous brawl.  
(2.3.161-63)

오셀로의 백인에 대한 무의식적인 동일시는 백인 이외의 인종들이 타자로서 그의 가치관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가 타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점을 보면 이와 같은 그의 질책은 상당히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27)</sup> 그것은 오셀로는 분명한 외국인이고, 베니스 사회의 관습에 익숙하지도 제대로 된 과학을 하지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오셀로는 베니스 여인들의 진정한 본질을 이야기해 말해주기 전까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데스테모나에게 비추어 보면서 서서히 인종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 오셀로 본인 스스로가 베니스 사회에 편입 될 수 없는 타자라는 사실은 그가 데스테모나와의 차이를 의식하면서 점점 분명해진다. 오셀로는 베니스 사회에서 이방인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결행했던 결혼에도 불구하고, 결혼 이후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외된 이방인에 불과하다.

이야고는 거울의 기능을 이용하면서 오셀로를 유혹한다. 일단 이야고는 여자들

27) Anthony Hecht. "Othello." *William Shakespeare's Othello: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7). p. 125.

의 성향을 잘 알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베니스의 여자들은 자기 남편들에게는 감히 보여주지 못하는 못된 짓을 신에게는 보여주는 것을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의미는 그가 여성들의 최고 도덕관은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키지 않는 것이라고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다. 이아고는 오셀로에게 거울을 들여다보게 만들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어두운 얼굴과 데스데모나를 비롯한 베니스인들의 하얀 피부를 비교하게 한다. 여기에서 이아고는 오셀로가 베니스 사회에 편입될 수 없는 ‘타자’임을 인식시키고 있다. 이아고는 계속해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여성을 폄하한다. 이아고는 부인 에밀리아(Emilia)를 가리켜 “여편네”(mistress) (5.2.182), “빌어먹을 화냥년”(Villanous whore)(5.2.227), “더러운 년”(Filth) (5.2.229)이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여성들을 향해 “여자란 자리에서 일어나면 놀고, / 잠자리에 들면 부지런히 일하죠”(Players in your housewifery, and / housewives in your beds)(2.1.110-11)라는 식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다. 이아고가 생각하는 여성의 존재는 가부장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사회, 문화, 경제적인 영역을 통제하고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인 부부관계까지도 수동적이어야 하며, 남성의 요구에만 움직이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이아고의 발언과 행동들은 당시 베니스 사회의 가부장제가 여성의 인격을 낮추고 하찮게 여기는 시각을 낳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아고의 여성혐오가 특정여성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니스의 전체 여성에게로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셀로는 처음 등장했을 때 베니스 사회에서 당당하게 인정받는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브라반시오가 자신과 데스데모나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아고의 말에 대한 오셀로의 대답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

오셀로 : 해볼 테면 해보라지.

국가에 대한 내 공로는 그 분의 고소썸은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니 문제 될 게 없네.  
 왕족임을 자랑해서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는 때가 오면,  
 내가 널리 알리게 될 사실이지만, 아직은 아무도 모르네.  
 나 오셀로는 왕족의 혈통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네.  
 그간 내가 쌓은 공적을 보더라도, 이번에 손에 넣은

자랑스러운 행운을 정중하게 요구할 만하지.  
 그런데 이아고, 나는 상냥한 데스테모나를 사랑하고 있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을 결혼이란 굴레와 제약 속에 가두겠나.  
 바다 속 보물을 다 준다고 해도 말일세. 보게! 저 햇불은 뭐지!

OTHELLO: Let him do his spite;

My services which I have done the signiory  
 Shall out-tongue his complaints. 'Tis yet to know-  
 Which, when I know that boasting is an honour,  
 I shall provulgate- I fetch my life and being  
 From men of royal siege, and my demerits  
 May speak unbonneted to as proud a fortune  
 As this that I have reach'd; for know, Iago,  
 But that I love the gentle Desdemona,  
 I would not my unhoused free condition  
 Put into circumscription and confine  
 For the sea's worth. But look what lights come yond!  
 (1.2.18-28)

오셀로는 스스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감과 자만심을 드러내지만 베니스인들은 타인종인 그가 자신들의 국가에서 성공하고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는 오셀로에게 상대적인 열등감을 심어주는 매개체가 되고 이러한 열등감은 그가 타자로서의 자의식을 드러내며 악의로 변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오셀로가 베니스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고, 그 직책을 잘 수행해 왔기 때문에 자신은 베니스에서 인정받으며 또 존경받고 있다는 확신, 그런 자만심이 그를 몰락케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sup>28)</sup> 오셀로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성공에 대한 열망은 베니스 사회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그의 열등감 즉, 타자로서의 자의식에 대한 보상 심리로 볼 수 있지만 베니스 사회에서는 오셀로를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으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

28) G. L. Evans. *The Upstart Crow: An Introduction to Shakespeare's Plays*. (London: J. M. Dent & Sons, 1982). p. 269.

는 것이다.

오셀로는 데스테모나에 대한 강한 자의식을 갖고 있다. 여성혐오와 더불어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의식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속성 중의 하나는 소유의식이다.<sup>29)</sup> 그리고 오셀로가 이아고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데스테모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그가 여성과 성욕에 대한 백인 남성들의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30)</sup> 오셀로는 데스테모나가 길들일 수 없는 야생매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그녀의 목을 매는 끈이 자신의 심장을 잇고 있는 끈이라 할지라도 휘파람을 불어서 놓아주고 바람 부는 쪽으로 날려 보내서 운명의 먹이로 만들겠다고 자신만만해 한다. 이러한 자신감의 발로는 데스테모나를 다른 백인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길들이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베니스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 복종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데스테모나의 배신으로 길들일 수 없는 야생매와 같은 존재로 파악한 오셀로는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오셀로는 이아고의 유혹과 교묘한 감언이설에 의해서 자신의 피부색이 검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불안을 느끼게 된다. 오셀로가 “아마도, 내가 검고, / 숙녀들의 방을 기웃거리는 멧쟁이 한량들이 지닌 부드러운 대화술이 없거나, / 또는 내가 세월의 계곡 속으로 /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Haply for I am black, / And have not those soft parts of conversation / That chamberers have, or for I am declined / Into the vale of years)(3.3.265-68)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오셀로가 갖고 있는 인종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까지는 본인의 피부색이 데스테모나와의 결혼과 자신의 일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자신의 피부색과 과거의 공적이 더 이상 베니스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타자로서의 자의식을 깨닫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오셀로는 데스테모나와의 피부색 및 인종적 차이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인지한 것이다. 이처럼 오셀로와 데스테모나의 결혼은 오셀로의 피부색과 그를 향한 인종적 편견으로 인해 상징되고 있는 어떤 야만성을 자연스럽게 유발시킨다고 할 수 있다.

29) 김종환. 『셰익스피어와 타자』. 서울: 동인, 2006. p. 224.

30) Newman. *Feminity and the Monstrous in Othello*. p. 132.

오셀로는 서서히 데스테모나와의 결별을 준비한다. 그는 데스테모나가 떠나간 것이고 자신은 속은 것이며 자신의 위안은 그녀를 증오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자신이 한 마리 두꺼비가 되어 깊은 동굴의 습기나 마시고 살지언정 사랑하는 물건의 한 구석을 다른 인간들이 사용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모든 여성은 남편을 배신한다는 여성혐오적인 발언으로 발전한다. 오셀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여성 전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일반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을 하나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오셀로의 모습이 잘 표현된 대목이다. “달의 여신 다이아 나의 모습처럼 깨끗하던 내 아내의 이름이 이제 더럽혀져서 / 마치 내 얼굴처럼 / 검게 되고 말았어”(Her name, that was as fresh / as Dian’s visage, is now begrim’d and black / as mine own face)(3.3.387-89)라고 말하는 오셀로의 대사에서는 그의 질투심이 드러나며, 이방인으로서의 열등의식, 즉 타자로서의 자의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아고는 가장 치명적으로 오셀로를 자극하기 위해 손수건을 이용한다. 오셀로가 데스테모나에게 결혼 후 처음으로 선물한 손수건은 그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과 그 소유물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르네상스 시대에 남성이 여성의 손수건을 소유한다는 것은 간통의 증거로 간주되었고,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는 엄한 처벌을 감당해야만 했다.<sup>31)</sup> 따라서 손수건은 남성이 여성을 소유했음을 표시하는 하나의 상징물이 되며, 이러한 손수건을 여성이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여성의 순결을 잃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아고는 오셀로에게 “부인 것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오늘 / 캐시오가 수염을 닦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I am sure it was your wife’s—did I today / See Cassio wipe his beard with.)(3.3.439-40)라고 말하며 오셀로가 데스테모나의 부정에 대해 의심할 수 있도록 자극한다. 이아고는 데스테모나에 대한 오셀로의 사랑의 증표인 손수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가 계획한 대로 오셀로를 자신의 계약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결국 오셀로와 데스테모나를 파멸의 길로 빠져 들어가도록 수순을 밟아

31) Karen Newman. "'And Wash the Ethiop White': Feminity and the Monstrous in Othello." *Shakespeare Reproduced: The Text in History and Ideology*. Eds. J. E. Howard and M. F. O'Connor. (New York: Methuen, 1987). p. 155.

간다.

이아고의 계략에 넘어간 오셀로는 손수건의 의미를 되새기며 테스테모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손수건은 오셀로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물려준 어머니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는 유일한 흔적으로 테스테모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표시다. 그만큼 오셀로는 손수건이 완전한 사랑을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손수건에 대한 욕구도 강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셀로가 테스테모나에게 준 손수건을 캐시오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는 그것이 테스테모나의 부정을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오셀로: 그 손수건은

이집트 짐시가 내 어머니께 드린 것이요.  
마법사인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거의 꿰뚫어 볼 수가 있었소.  
그녀가 어머니께 말하길, 그 손수건을 지니고 있는 동안은  
사랑스런 여인으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 할 수 있지만,  
만약 그걸 잃어버린다면 남에게 주게 되면  
남편의 비위를 거슬리게 되고  
남편은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될 거라고 하였소.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그걸 나에게 주시고는  
내가 아내를 맞이하게 되거든  
그걸 그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소. 그래서 그걸 당신에게 준거요.  
그걸 늘 잘 간직하고, 당신의 귀한 눈처럼 귀하게 다루시오.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면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멸을 자초하게 될거요.

OTHELLO: That handkerchief

Did an Egyptian to my mother give:  
She was a charmer and could almost read  
The thoughts of people. She told her, while she kept it  
'Twould make her amiable and subdue my father  
Entirely to her love; but if she lost it  
Or made a gift of it, my father's eye  
Should hold her loathed and his spirits should hunt  
After new fancies. She dying gave it me,

And bid me when my fate would have me wive,  
 To give it her. I did so, and take heed on't:  
 Make it a darling, like your precious eye.  
 To lose't or give't away were such perdition  
 As nothing else could match. (3.4.51-64)

오셀로는 데스테모나에게 손수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손수건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을 배반한 데스테모나를 서서히 괴롭히고 조롱하며 잔인한 복수를 시작한다. 오셀로는 이아고와의 대화에서 손수건에 대한 자백을 먼저 받고 그 죄의 대가로 목을 매달아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천벌을 받을 것들이라고 표현하며 캐시오와 데스테모나를 향한 분노를 터트린다. 오셀로는 일련의 이아고의 계략에 완전히 말려들어 분별력 없이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로 인해 생겨난 의치증은 한 편으로는 그의 성격적 결함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오셀로는 이아고의 계략에 점점 휘말리게 되고 강한 질투심에 데스테모나를 더욱더 억압하기 시작한다.

오셀로의 데스테모나에 대한 분노는 손수건 사건을 통해 극에 달한다. 오셀로는 자신이 비참하다고 표현하며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부동의 표적이 되어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는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항변한다.

오셀로 : 하지만 내 마음을 소중하게 간직해 둔 그 곳,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는 그 곳,  
 내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마르는 것도  
 그 샘에 달려있어.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추방당하다니!  
 그 샘을 천한 두꺼비들이 엉겨 붙어 알을 까는  
 더러운 웅덩이로 만들어 버리다니! 채 익지도 않은  
 장미 빛 입술을 한 천사인 인내여! 거기서 그대 안색을 바꿔라!  
 아, 거기에서, 지옥과 같이 소름끼치는 표정을 하도록 해라!

OTHELLO: But there where I have garnered up my heart,  
 Where either I must live or bear no life,  
 The fountain form the which my current runs  
 Or else dries up-to be discarded thence



Or keep it as a cistern for foul toads  
 To knot and gender in! Turn thy complexion there,  
 Patience, thou young and rose-lipped cherubin;  
 Ay, there look grim as hell! (4.2.47-63)

오셀로는 자신이 ‘그 곳’에서 추방당한 것을 원망한다. 오셀로가 말하는 ‘그 곳’은 순결과 정절을 상징하는 여성의 자궁이다. 오셀로가 자신만이 소유해야하는 그곳이 다른 남자와의 부정으로 더러워진 웅덩이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된 것이다.

결국 오셀로는 데스테모나의 살해를 결심한다. 데스테모나를 죽이지 않으면 더 많은 남자를 배신할 것이니 죽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들이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택하는 당대의 일반적인 방식 일 수 있다. 그는 “불타는 지옥에 떨어진 거짓말쟁이 같으니, / 저 여자를 죽인 것은 바로 나다.”(She’s like a liar gone to burning hell / ’Twas I that killed her.)(5.2.130-131)라고 말하며 자신을 속인 데스테모나는 남성을 속이는 여성의 대표가 되고 자신은 그런 여성을 처벌하는 남성의 대표가 된다는 생각과 판단을 하며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 시키려고 한다. 오셀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데스테모나를 죽인 것은 자신이라는 완벽한 통제를 통해서 자신의 남성성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에밀리아에 의해 데스테모나의 결백이 밝혀지게 되고 오셀로는 모든 남성을 대표하여 부정한 아내를 심판한 가부장이 아닌 죄 없는 백인 여성을 살해한 살인자로 남게 된다.

오셀로 : 그러면 당신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사랑한 사람을,  
 쉽게 질투하진 않지만 일단 빠지면  
 극도로 혼란되는 사람을 자기 손으로  
 자기네 부족보다 더 값진 진주를 던져버린  
 비천한 인디언처럼  
 그의 종족 모두보다 더 값진 진주를 자기 손으로  
 내버린 사람에 대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한 두 눈에서,

비록 눈물 흘리는 것에는 익숙지 않지만,  
 아라비아 고무나무의 약용 수액이 줄줄 흐르듯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야만 할 것이요. 이렇게 적어주시오.  
 그리고 덧붙여주시오. 전에 알레포에서,  
 터번을 두른 악의에 찬 오스만놈이  
 베니스 사람을 때리고 이 나라를 모욕했을 때,  
 내가 할례를 한 그 개 같은 놈의 먹살을 잡고서,  
 찢었다고, 이렇게  
 자신을 찢른다.

OTHELLO: Then must you speak

Of one that loved not wisely, but too well;  
 Of one not easily jealous but, being wrought,  
 Perplexed in the extreme; of one whose hand,  
 Like the base Indian, threw a pearl away  
 Richer than all his tribe; of one whose subdued eyes,  
 Albeit unused to the melting mood,  
 Drops tears as fast as the Arabian trees  
 Their medicinable gum. Set you down this;  
 And say besides that in Aleppo once  
 Where a malignant and a turbaned Turk  
 Beat a Venetian and traduced the state,  
 I took by th' throat the circumcised dog  
 And smote him thus.  
 He stabs himself. (5.2.339-52)

오셀로는 베니스에 헌신했던 과거를 생각해 달라고 청하며 베니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지막 노력을 기울인다. 그의 마지막 대사를 통해 우리는 오셀로가 백인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묻혀 있던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체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스스로를 비천한 인디언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백인사회에서 인종적 타자였던 자신이 또 다른 인종적 타자를 경멸하고, 자신도 역시 인종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갇혀있음을 암시 한다. 그는 데스데모나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행위를 베니스의 장군으로서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여성을 소유물로

보고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강요하는 베니스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어 초래된 것이다.

오셀로가 단지 이아고의 계략에 속아 아내 데스테모나를 의심하고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한 것이 핵심은 아니다. 이 시대에 사회적으로 만연했던 인종 편견과 함께 이아고가 만들어낸 여성에 대한 불신에 오셀로가 적극 동참하게 되면서 결국 오셀로는 피해자인 동시에 공모자가 된 것이다. 오셀로의 죽음에 대한 베니스인들의 반응으로 미루어보아 그의 자살을 부추기는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모종의 공모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야만적 타자를 파멸시키는 문명화된 흑인이라는 개념만큼 베니스의 지배문화를 충족시키는 것은 없다는 것처럼 마지막에 나타난 오셀로의 자기 부정은 상대적으로 백인 우월주의를 확신하게 한다.<sup>32)</sup> 그는 철저히 고립된 채 죽음을 맞이하고 이러한 고립 속에서 기존의 질서로 회귀하게 하는 죽음은 오셀로가 사회의 희생양이었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오셀로는 극 초반에는 전도유망한 강직한 군인의 모습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타자로서의 자의식과 여성혐오로 결국 동물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오셀로는 이아고가 복수를 위해 꾸민 계략에 쉽게 넘어가고 분별력이 떨어지면서 아내에 대한 진심이 어느 순간 의치증으로 변하면서 견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는 데스테모나를 향해 여성혐오적인 무차별적인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는 등 야만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인물로 전락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오셀로의 타자로서의 자의식과 여성혐오가 스스로를 비극으로 이끌어간 것인데 이는 단지 오셀로가 갖고 있는 성격적 결함뿐만 아니라 당시 베니스 사회에 만연했던 인종 편견과 가부장제의 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2) Derek Cohen. *The Politics of Shakespeare*. (London: St. Martin's Press, 1993). p. 13.

#### IV. 데스테모나의 여성의 정체성

셰익스피어 시대의 여성들은 중세의 봉건제도가 사라지고 여러 나라가 중앙집권화 되면서 과거의 여성들이 실제로 행사할 수 있었던 정치적인 권력마저도 상실한다. 그리고 ‘궁정식 연애’(courtly love)가 유행하던 시절 누릴 수 있었던 중세 여성들의 성적 자유 또한 상실하고 정조의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하게 된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인문주의 교육자들의 “보편주의적 사고방식”(the universalistic outlook)을 받아들임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을 잃게 되었다.<sup>33)</sup>

실제로 셰익스피어 시대의 여성들은 아버지에게 절대 복종을 하며 지내야 했던 처녀시절을 마감한 여성이 결혼을 해서 자신의 가정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지위나 권리가 보장되었던 것은 아니다. 당대의 영국에서의 아내의 지위와 권리는 오히려 그 이전보다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스톤(Lawrence Stone)은 그 이유를 첫째, “혈족관계의 약화”(decline of kinship)에서 찾고 있다. 즉 가족제도가 핵가족화 됨으로써 여성들은 자신의 혈족의 보호를 상실한 채 남편의 권위 그리고 착취에 노출되게 된 것이다. 둘째, 국가와 법률이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는 것을 법질서의 주요한 “담보”(guarantee)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개신교의 결혼의 “신성화”(sanctification)와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성을 종속화 시켰다는 것이다.<sup>34)</sup> 그러므로 여성은 결혼을 하면 남편을 섬기고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배웠으며 여성은 성직자들의 가르침을 내재화하여 남편을 섬기고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미덕으로 생각하고 믿게 된다. 여성은 한 인격체이기 보다 항상 남성에 따라 그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비주체적이고 종속적인 인물로 여겨지고 가부장 사회 속의 타자로서 존재한다.

33) Joan Kelly-Godol. “Did Women Have a Renaissance?” *Becoming Visible: Women in European History*. Eds. Renate Bridenthal and Claudia Koonz. (Boston: Houghton Mifflin, 1997). p. 147.

34) Lawrence Ston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New York: Harper & Row, 1977). p. 7.

셰익스피어는 가부장적 가치나 윤리를 넘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여성성의 유형을 작품에 담고 있는데 대표적 인물이 데스테모나이다. 많은 비평가들이 데스테모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완벽한 여성상으로 제시하고 있고, 또한 표면상으로는 결함이 없는 여성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심층적인 측면에서 보면 데스테모나의 내면에는 적극성과 자만심이 강하게 감추어진 자존심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 할 수 없다. 당시 베니스 사회에서 백인 여성이 흑인남성과 결혼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데스테모나는 많은 청혼자들을 거절하고 오셀로에 매료되어 부친 브라반시오를 속이고 무어인 오셀로와 결혼을 하면서 가부장제를 무시하고 맞서는 인물로 가부장 사회 속의 타자로 그려진다. 데스테모나가 명망 있는 청혼자들을 모두 거절하고 흑인 남자와 결혼 한다는 것은 여성의 주체적인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녀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능동성과 주체성을 보이며 그 시대의 가부장 사회에 대한 도전을 한 것이다. 데스테모나는 베니스 사회의 가부장제에서 아버지의 반대에도 아버지의 테두리 안에서 딸로서의 의무를 다하였고, 여성으로서는 주체적으로 오셀로와의 사랑과 결혼을 선택한다.<sup>35)</sup> 결혼 전에는 자아가 뚜렷한 주체적인 여성의 정체성을 띄는 여성이지만 결혼 후에는 그녀의 정체성이 눈에 띄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변하게 된다. 데스테모나는 주체성과 여성성이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었지만 결혼을 한 후에는 여성성에 치우치는 태도를 보이게 되고 결국 이것은 그녀를 비극으로 이끌고 간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데스테모나를 향한 오셀로의 사랑은 대단히 적극적이다. 오셀로는 데스테모나를 사랑하며 고백을 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녀와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한다.

오셀로 : 하늘이 자기를 그런 남자와 맺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만약 제 친구 가운데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제 얘기를 들려주기만 하면 되고,

35) Emily Batels. "Strategies of Submission: Desdemona, the Duchess, and the Assertion of Desire." *SEL* 36 (1996). p. 419.

그럼 그게 자신에게 구혼하는 게 될 거라고.  
이 말에 암시를 얻어 전 사랑을 고백했죠.  
제가 겪은 위험과 고난을 동정하여 절 사랑했고,  
그녀가 동정해 주었기에 전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OTHELLO: That heaven had made her such a man. She thanked me,  
And bade me, if I had a friend that loved her,  
I should but teach him how to tell my story,  
And that would woo her. Upon this hint I spake:  
She loved me for the dangers I had passed,  
And I loved her that she did pity them. (1.3.162-67)

오셀로의 전쟁 경험담을 듣고 데스테모나는 그의 용기에 매혹되어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데스테모나와 오셀로는 결혼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sup>36)</sup> 여기에서 이들의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오셀로는 결혼을 갈망하는 대상을 성취하는 것으로, 데스테모나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으로 그 사랑이 깊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데스테모나는 오셀로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그녀는 오셀로의 성품에 마음이 끌렸고, 그의 명예와 용맹 속에 영혼과 운명을 바쳤다고 말하며 주체적인 여성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데스테모나 : 제가 무어 님을 사랑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만사를 뿌리치고 오직 운명에 맡기게 된 이번 행동을  
보아 세상이 다 알 것입니다. 전 그이의 성품,  
그 자체에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오셀로의 얼굴을 그이 마음에서 발견하고,  
그의 명예와 용맹 속에 저는 제 자신의 영혼과  
운명을 바쳤습니다.

DESDEMONA: That I did love the Moor to live with him.  
My downright violence and storm of fortunes

---

36) Newman. *The Text in History and Ideology*. p. 150.

May trumpet to the world. My heart's subdued  
Even to the very quality of my lord.  
I saw Othello's visage in his mind  
And to his honours and his valiant parts  
Did I my soul and fortunes consecrate. (1.3.244-51)

데스테모나는 오셀로를 향한 사랑에 대해 이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그녀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권위를 추구하는 아버지 브라반시오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매우 진보적인 여성으로, 그녀의 적극적인 태도는 당시 사회의 여성에 대한 통념을 뛰어넘은 것이다.<sup>37)</sup> 이 시대의 여성들은 배우자 선택에 대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흑인과의 결혼이 금기시되었지만 데스테모나는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함으로써 수동적인 여성이 아닌 매우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임을 알 수 있다.

데스테모나는 주체적인 여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남편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사이프러스에서 남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는 데스테모나의 모습은 남성에게 자신의 운명을 의탁해 살아가는 당시 여성들과는 달리 강한 주체성을 보여준다.<sup>38)</sup> 그녀는 배우자를 판단하는데 인간의 내면적인 면을 중요시 한다. 이러한 그녀의 판단기준이 건전했기 때문에 당시 사회의 시대를 초월한 결혼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그 시대의 사회적인 인습에는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당시 사회질서와 맞서 가부장 사회 속의 타자로서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흑인 무어인과의 결혼은 당시 베니스 사회에서는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지만 그녀는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사랑을 지킨다. 결혼 결정에 있어서 여성은 수동적이고 남성의 구혼을 기다리는 연애관을 탈피한 것으로 데스테모나는 당시의 전통적인 여성상과는 거리가 먼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녀가 선택한 결혼은 브라반시오에게는 충격적인 반항이며, 마술에 홀렸거나 마약에 취한 것과 같은 몽유병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이다. 그녀의 가출은 순종의 거부로서가 아니라 절도나 반역 또는 그의 보

37) Carol Thomas Neely. *Broken Nuptial in Shakespeare's Plays* (New Heaven: Yale UP, 1985). p. 126.

38) Irene G. Dash. *Wooing, Wedding, and Power: Women in Shakespeare's Plays* (New York: Columbia UP, 1981). p. 108.

호로부터의 일종의 무모한 탈출로서 데스데모나의 도주는 아버지 브라반시오에게 단순한 반항이 아닌 반역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이다.<sup>39)</sup> 이와 같이 강인한 주체의식을 가진 데스데모나의 사회적 질서를 무시한 결혼은 가부장 사회 속의 타자로서 당시 베니스 사회에 대한 일종의 도전적 행위라 할 수 있다.

데스데모나는 처음 등장부터 결혼 첫날밤에 사이프러스로 파견되는 남편과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데스데모나가 결혼 첫날밤 전쟁을 위해 사이프러스로 파견된 남편을 따라가겠다고 밝히는 것은 오셀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녀의 모습과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다.

데스데모나 : 여러 의원님들, 저만 홀로 뒤에 남아  
안일한 생활을 한다면  
아내된 보람도 없거니와  
독수공방은 또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부디 동행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DESDEMONA: So that, dear lord, if I be left behind  
A moth of peace, and he go to the war,  
The rites for which I love him are bereft me,  
And I a heavy interim shall support  
By his dear absence. Let me go with him. (1.3.251-55)

데스데모나의 의회 발언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의 권위의 엄호 하에서 그들의 행동을 수정하고 직접적인 저항 없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재가 받을 수가 있다. 여성들은 좋은 아내이자 욕망을 지닌 주체이며, 복종을 하면서도 자기주장을 하고, 침묵과 동시에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sup>40)</sup> 이처럼 데스데모나가 최고의 권력 장소인 의회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 자체가 가부장제의 큰 저항으로 볼 수 있다. 그녀의 이와 같은 발언은 다른 여성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한 욕망을 표

39) Stephen Greenblatt. *Renaissance Self-Fashioning: From More to Shakespeare* (Chicago: Chicago UP, 1980). p. 24.

40) Emily Batels. *SEL* 36. p. 420.



출하는 존재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듯 데스테모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여성으로 당시 남성중심의 사회적 통념을 깨고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하여 결혼했지만 결국 그러한 현실에 적응해내지 못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아고는 키프로스에 도착한 데스테모나에게 여성들을 생각 없는 인물들로 묘사하며 여성혐오에 대해 거리낌이 없이 발언한다. 데스테모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에밀리아에게 “이아고가 네 남편이라고 해도 그를 본받지는 말아.”(Do not learn of him, Emilia, though he be thy husband.)(2.1.158-59)라고 말한다. 데스테모나가 이아고의 아내 에밀리아에게 충고하는 것은 여성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당시의 가부장제를 받아들이면서도 여성들을 존중해주지 않거나 비도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남성들은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모순성을 나타낸다.

오셀로와 데스테모나의 불행의 시작은 데스테모나가 캐시오의 복직에 대해 오셀로에게 간청을 하는데서 부터 시작된다. 이아고의 계략으로 오셀로의 부관 자리를 박탈당한 캐시오는 이아고의 계략에 넘어가게 된다. 캐시오는 데스테모나에게 자신의 복직을 위해 오셀로에게 변호해 줄 것을 간청하는데 이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대단히 진솔하다.

데스테모나 : 그런 걱정은 마세요. 여기 이 에밀리아를 증인으로 삼아  
부관님의 복직을 약속하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정을 맹세한 이상, 끝까지 뜻을 관철시키겠어요,  
주인께서 쉬지 못하도록 하겠어요. 내 청을 들어주실 때까지  
장군이 주무시지 못하게 하고 참을 수 없을 때까지  
말씀드리겠어요.  
잠자리에서도 조르고 식탁에서도 계속 조르겠어요.  
그분이 뭘 하시든 끼어들어 부관님을 복직시키라고 청하지요.  
그러니 캐시오 부관님, 기운을 내세요.  
당신을 변호하기로 했으니, 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소청을 성사시키고 말겠어요.

DESDEMONA: Do not doubt that; before Emilia here  
I give thee warrant of thy place. Assure thee,

If I do vow a friendship, I'll perform it  
 To the last article; my lord shall never rest;  
 I'll watch him tame, and talk him out of patience;  
 His bed shall seem a school, his board a shrift;  
 I'll intermingle every thing he does  
 With Cassio's suit. Therefore be merry, Cassio;  
 For thy solicitor shall rather die  
 Than give thy cause away. (3.3.19-28)

이러한 캐시오의 복직에 대한 데스테모나의 요구는 오셀로의 심리상태나 기분은 무시한 채 오로지 자기주장과 여성으로서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행동이다. 더 나아가 오셀로가 데스테모나에게 사랑의 선물로 준 손수건을 보여 달라는 요청에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무시하며 오직 캐시오의 복직만을 주장한다. 이와 같이 데스테모나의 행동은 당시 베니스 사회의 인종 편견 속에서도 오셀로와의 결혼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굳건히 펼친 것처럼 자신이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와 행동하는 여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데스테모나는 오셀로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이고 그를 매우 신뢰한다. 비록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만 불평 없이 그러한 현실을 수용한다. 그녀는 “정말 부끄럽군요. 에밀리아. / 군인의 아내답지 않게 그 분을 / 불친절하다고 불평을 하다니.”(Beshrew me much, Emilia, / I was -unhandsome warrior as I am- / Arraigning his unkindness with my soul)(3.4.144-46)라고 말하며 오셀로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대우를 당하였음에도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결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데스테모나는 “당신 의향대로 하세요. / 어떻게 하시든 복종할거예요”(be as your fancies teach you / Whate'er you be, I am obedient)(3.3.89-90)라고 말하며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인다. 데스테모나의 오셀로에 대한 복종은 거의 마비상태에 이른 것이며, 어쩔 수 없을 만큼 수동적이 되어 그녀 스스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sup>41)</sup>

41) Carol Thomas Neely. "Women and Men-In Othello," *Critical Essays on Shakespeare's Othello*, Ed. Anthony General Barthelemy (New York: Macmillan, 1994). p. 67.

데스테모나는 또한 대단히 현실적 상황을 수용한다. 데스테모나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오셀로에게 비난을 받지만 그녀는 어떠한 변명도 없이 현실을 받아들인다. 우선 오셀로는 데스테모나에게 언어폭력을 통해서 자신의 열등의식을 드러낸다.

오셀로 : 이 깨끗한 종이는, 이 훌륭한 책은 그 위에  
‘매춘’이라고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단 말인가?  
무슨 짓을 했느냐 라니!  
무슨 짓을 했느냐하고? 천하에 강보 년 같으니라고!  
네 행동을 입으로 말하면, 정숙함을 다 까맣게 태워 버리도록  
내 뺨을 다시 두드려 만들어야 될 거다. 무슨 짓을 했냐고!  
하늘도 코를 막고, 달도 눈을 깜박이고 못 본 척 하며,  
뛰든지 만나기만 하면 키스하는 음란한 바람도  
굴속에 들어가서 듣지 않으려고 침묵하고 있을 것이다.  
무슨 짓을 했느냐고? 뻔뻔스런 매춘부 같으니라고!

OTHELLO: Was this fair paper, this most goodly book,  
Made to write 'whore' upon? What committed!  
Committed? O thou public commoner!  
I should make very forges of my cheeks  
That would to cinders burn up modesty  
Did I but speak thy deeds. What committed!  
Heaven stops the nose at it, and the moon winks;  
The bawdy wind, that kisses all meets,  
Is hushed within the hollow mine of earth  
And will not hear it. What committed?  
Impudent strumpet! (4.2.70-80)

오셀로는 처음에는 데스테모나를 매춘부로 취급하는 여성 혐오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더욱더 심화된 언어폭력의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데스테모나의 비참한 상황은 처음부터 아버지 브라반시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한 결과물로 일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데스테모나는 이아고와의 대화에서 여전히 오셀로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을 표현하며 그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데스테모나 : 내가 사고 과정이나 실제 행동에서  
내 의지로 그의 사랑을 어긴 적이 있다면,  
내 눈이나 귀 또는 다른 어떤 감각이  
다른 어떤 모습에서 즐거움을 취했다면  
그리고 (그이가 날 떨쳐버리고 이혼하여  
거지신세 되더라도) 언제나 그대를  
이전에도 앞으로도 깊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에겐 아무런 안락도 없으리라!

DESDEMONA : If e'er my will did trespass 'gainst his love  
Either in discourse of thought or actual deed;  
Or that mine eyes, mine ears, or any sense  
Delighted them in any other form;  
Or that I do not yet, and ever did,  
And ever will - though he do shake me off  
To beggarly divorcement - love him dearly,  
Comfort forswear me! (4.2.151-57)

오셀로를 향한 데스테모나의 숭고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엿볼 수 있다. 데스테모나가 결혼을 하면서 보여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은 사랑에 대한 그녀의 열정에서 나온 것이고 결혼 후 보여준 희생과 여성적인 부드러움 또한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녀는 자신만의 판단기준으로 오셀로를 선택하였고 그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노력하는 모습이다.

데스테모나는 스스로 죽음을 예견한다. 남편이 자신을 배신한 대가로 살해를 결심할 때 그녀 스스로 죽음을 암시한다.

데스테모나 : 친정어머니는 바바라라는 몸종을 데리고 계셨어.  
그 애가 한 남자를 사랑했는데, 그는 바람둥이로 밝혀졌고,  
마침내 그녀를 버렸지. 그녀는 '버들노래'를 불렀어.

오래전부터 애송되던 노래인데,  
 그녀의 운명을 암시한 것 같았어.  
 그 애는 그 노래를 부르며 죽었거든, 오늘밤엔 웬일인지  
 그 노래가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군.  
 머리를 한 쪽으로 제키고 가련한 바바라처럼  
 그 노래를 꼭 부르고 싶어. 제발, 어서 가봐.

DESDEMONA: My mother had a maid call'd Barbara;

She was in love, and he she loved proved mad  
 And did forsake her. She had a song of willow;  
 An old thing 'twas but it expressed her fortune,  
 And she died singing it. That song tonight  
 Will not go from my mind. I have much to do  
 But to go hang my head all at one side  
 And sing it like poor Barbary - prithee,  
 dispatch. (4.3.25-32)

데스테모나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데는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오셀로가 데스테모나에 가한 폭력과 살해는 가부장제의 존립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오셀로는 자신의 아내 데스테모나를 부정한 여성으로 간주하고, 부정한 여성은 언젠가는 자기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까지도 배반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스테모나에게 가한 폭력과 살해는 정당한 행위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성 우월적인 가부장적 권위에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대등한 인격체들이 모여서 구성된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오셀로와의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굳건히 하고자 했던 데스테모나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의 정체성은 일단 상실한 모습이다. 어쩌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변한 데스테모나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당시 베니스 사회의 가부장제의 틀을 벗어나 능동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했던 주체적인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다.

데스테모나 : 아! 절 쫓아내도 좋아요, 여보. 죽이지는 마세요!

오셀로 : 가만 누워 있어, 이 매춘부녀!

데스테모나 : 내일 죽이시고, 오늘밤만은 살려주세요!

오셀로 : 안돼, 아무리 악을 써도

데스테모나 : 그럼 반시간만이라도!

오셀로 : 이렇게 된 이상엔 더 지체할 순 없어.

데스테모나 : 한 마디 기도를 올릴 동안이라도!

오셀로 : 이미 늦었어.

데스테모나 : 오, 여보, 여보, 여보!

*(그는 그녀의 목을 조른다.)*

DESDEMONA: O banish me, my lord, but kill me not!

OTHELLO: Down, strumpet!

DESDEMONA: Kill me tomorrow; let me live tonight!

OTHELLO: Nay, if you strive -

DESDEMONA: But half an hour!

OTHELLO: Being done, there is no pause.

DESDEMONA: But while I say one prayer!

OTHELLO: It is too late.

DESDEMONA: O, Lord, Lord, Lord!

*(He smothers her.) (5.2.79-86)*

데스테모나의 이러한 태도는 오셀로에 대한 변함없는 충실한 사랑을 과시하고자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결백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고 오셀로에 의한 죽음을 마치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데스테모나의 숭고하고 희생적인 사랑은 극 초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에서부터 오셀로에 대한 복종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불가피한 그녀의 선택일 것이다. 데스테모나가 베니스 사회의 가부장제에 맞서 선택한 주체적인 결혼의 결과는 결국 오셀로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나타난다.

데스테모나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자신의 정절을 의심하는 남편에게 자신을 변호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가를 의심하게 된다. 결백한 그녀를 향해 오셀로의

비난이 쏟아졌을 때도 데스테모나는 반박조차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데스테모나의 능동성과 주체적인 정체성은 결국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초월적인 모습으로 발전한다.

에밀리아 : 오, 누가 이런 짓을 했나요?

데스테모나 : 누구도 아니고 내가 했어. 안녕  
친절한 주인님께 안부나 전해줘.  
오, 안녕!(죽는다.)

EMILIA: O, who has done this deed?

DESDEMONA: Nobody; I myself. Farewell!

- O, Farewell! [She dies.] (5.2.124-26)

데스테모나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 남편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주며 본인의 탓으로 돌리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sup>42)</sup> 남편과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 진실했기 때문에 부정한 여자로 오해받고 사느니 차라리 죽음으로 자신의 정절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다. 데스테모나의 최후의 모습에서 주체성과 저항적인 힘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녀의 죽음은 결코 주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살해를 당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데스테모나는 가부장제도의 현실 속에서 백인여성과 흑인남성의 결혼을 용납할 수 없었던 당시 베니스 사회에서 가부장적 권위를 추구하는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대응하고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하는 가부장 사회 속의 타자로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 주체성을 상실하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정체성이 변화하면서 억울한 죽음의 주체가 된다. 데스테모나는 아버지로부터 독립은 할 수 있었지만 남편 오셀로의 그늘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다. 또 다른 가부장제도의 틀 안에서 완전한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녀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소유물로 여긴 오셀로의 가부장적 사고방식도 한몫을 한 것이다.

42) Marilyn French. *Shakespeare's Division of Experience* (London: Sphere Books, 1983). p. 217.

## V. 결론

셰익스피어시대는 신분계급의 구조와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가 시작되며, 전통적인 가치관과 고정관념에 대한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등 혼란과 발전을 거듭한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상황을 반영하는 플롯과 주제를 담고 있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공연되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폭넓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독자나 관객들에게 변함없는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오셀로』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르네상스 시대는 새로운 세계관과 인간관의 등장과 함께 인간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혼란을 겪는 시대이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된 베니스라는 도시는 개방된 사회로 일찍이 서구에서 상업사회로 자리 잡은 도시 국가 중 하나이다.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가부장적 사상이 만연하고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의 종속물로서 그들의 자율성을 통제 당하고,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 또한 받지 못한다. 주체성을 가진 여성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체계가 아니라 여성의 자아실현을 막고 여성을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만을 담당하는 존재로 보았으며, 인격체로서의 여성의 존엄성도 무시한다. 또한 이 시대 베니스 사회는 인종 편견이 매우 심하여 많은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아래 강요와 탄압을 받는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흑인 추방 명령’에서 볼 수 있듯이 여왕은 백인과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흑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을 영국에서 추방할 것을 명령한다. 16세기까지 사악함, 오염과 더러움의 의미로 검정색이 사용되고, 흑인 무어인들은 개종을 강요당하며 개종하지 않는 자는 노예가 된다. 이와 같이 흑인 무어인은 국가에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며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탄압을 받는다. 다른 인종간의 결혼을 통해서 베니스 사회가 백인 우월주의와 가부장제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양면적인 사회임이 드러나고 이러한 사회적인 요소는 오셀로와 데스테모나의 성격적 결함과



함께 그들을 비극으로 몰고 가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오셀로』는 인종적 타자로서 오셀로가 겪게 되는 인종 편견과 여성혐오 그리고 가부장 사회 속의 타자인 데스데모나의 정체성의 변화를 통해 비극을 맞이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그들의 성격적인 결함은 인종 편견이나 가부장제라는 당시 베니스의 사회적인 요인들과 함께 오셀로와 데스데모나를 비극으로 이끌어간다.

오셀로는 흑인이었지만 베니스 사회에서 본인이 세운 공로가 크고 그로 인해 인정을 받는 장군이다. 당시 사회의 인종 편견에도 불구하고 백인 여성 데스데모나와 결혼에 성공한다. 하지만 당시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인종 편견과 그를 둘러싼 인종차별적 대우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피부색에 대한 열등감으로 타자로서의 자의식을 드러내며 이야기의 계략에 쉽게 빠져든다. 오셀로의 과한 자신감은 타 인종에게 너무도 배타적인 베니스 사회와 충돌하게 된다. 또한 오셀로는 타자로서의 자의식과 여성혐오로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를 향한 많은 이들의 인종 편견적 행태들이 이어지고 그 역시 극 초반의 전도유망한 강직한 군인의 모습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동물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오셀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결국 그가 갖고 있는 여성혐오 때문이다. 이는 오셀로가 베니스 사회의 가부장제의 권위와 인종 편견을 무시하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그녀에 대한 의처증을 불러일으키며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여성혐오가 드러나면서 결국 자신의 아내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 결국 본인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간 것이다.

데스데모나는 오셀로와의 결혼을 스스로 선택한 매우 능동적인 여성으로 당시 베니스 사회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사고방식으로 사회적 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주체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그녀는 인종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였고, 오셀로를 향한 인종 편견에도 전혀 구애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들을 뛰어넘는 진취적인 여성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데스데모나의 사랑은 당시 베니스 사회가 갖고 있던 시대적인 상황과 오셀로의 여성혐오가 더해져 가부장 사회 속의 타자로서 결국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데스데모나는 천성에서 나온 그녀의 순수한 사랑으로 흑백간의 금기를 깨뜨리며 주체적인 결혼을 통해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지만 그녀의 이러한 시도는 결국 가부장제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

결론적으로 베니스 사회에 팽배해 있었던 인종 편견과 가부장제는 오셀로와 데스테모나를 타자로 내몰게 되며, 그들은 인종적 타자와 가부장적 타자로서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받게 된다. 오셀로는 베니스 사회에서 전도유명한 강직한 무어인이지만 타자로서의 그를 향한 인종 편견과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타자로서의 자의식과 여성혐오로 결국 비극을 맞이한다. 데스테모나는 능동적으로 행동하며 주체성을 가진 결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였지만 여성의 주체적인 정체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당시 사회의 현실 속에서 그녀는 가부장 사회 속의 타자로서 스스로의 삶을 비극으로 마감한다. 결과적으로 셰익스피어는 『오셀로』에 나타난 주인공인 오셀로와 데스테모나를 타자의 입장에서 이들의 자의식과 저항의식을 통해 베니스 사회의 전반적인 편견과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 BIBLIOGRAPHY

### 1. Primary Source

Shakespeare, William. *Othello: Cambridge School Shakespeare*. Ed. Jane Coles. Cambridge: Cambridge UP, 2004.

### 2. Secondary Sources

- 강석주. 『셰익스피어 문학의 현대적 의미』. 서울: 동인, 2007.
- 김익달. 『철학 대사전』. 대구: 학원사, 1963.
- 김종환. 『셰익스피어와 타자』. 서울: 동인, 2006.
- 박동권. 「오셀로의 비극적 요인: 타인종에 대한 편견」. 『영어영문학21』 51.1 (2009): 211-31.
- 오병기. 「1930년대 한국 심리 소설의 자의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0.
- 이덕수. 『비극적 갈등양식과 셰익스피어의 비극』. 서울: 형설출판사, 1995.
- 이용은. 「멕베스부인의 몸이미지와 의미한계」. 『셰익스피어 비평』 36.1 (2000): 57-84.
- Adler, A. 윤성규 역. 『성격심리학』 (*Individual Psychology*). 서울: 지식여행, 2012.
- Batels, Emily. “Strategies of Submission: Desdemona, the Duchess, and the Assertion of Desire.” *SEL* 36 (1996): 417-33.
- Bradley, A. C. *Shakespearean Tragedy: Lectures on Hamlet, Othello, King Lear, Macbeth*. 1904. London: Macmillan, 1992.
- Coleridge, S. T. “Notes on the Tragedies of Shakespeare: *Othello*.” *Shakespearean Criticism*. New York: Dutton. 1960: 40-48.

- Cohen, Derek. *The Politics of Shakespeare*. London: St. Martin's Press, 1993.
- Dash, Irene G. *Wooing, Wedding, and Power: Women in Shakespeare's Plays*. New York: Columbia UP, 1981.
- Evans, G. L. *The Upstart Crow: An Introduction to Shakespeare's Plays*. London: J. M. Dent & Sons, 1982.
- French, Marilyn. *Shakespeare's Division of Experience*. London: Sphere Books, 1983.
- Greenblatt, Stephen. *Renaissance Self-Fashioning: From More to Shakespeare*. Chicago: Chicago UP, 1980.
- Greene, Gayle. "This That you Call Love: Sexual and Social Tragedy in Othello." *Shakespeare and Gender: A History*. Eds. Deborah E. Barker and Ivo Kamps. London: Verso, 1995.
- Harley K. Grancille-Barker. *Prefaces to Shakespeare*, Vol. 2. New York: Princeton UP, 1978.
- Hecht, Anthony. "Othello." *William Shakespeare's Othello: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7: 122-31.
- Honigmann, E. A. J. Ed. "Introduction." *The Arden Shakespeare: Othello*. London: Thomas Nelson & Sons Ltd, 1997: 8-15.
- Kelly-Godol, Joan. "Did Women Have a Renaissance?" *Becoming Visible: Women in European History*. Eds. Renate Bridenthal and Claudia Koonz. Boston: Houghton Mifflin, 1997: 145-52.
- Leavis, F. R. "Diabolical Intellect and the Noble Hero." *Shakespeare: Othello*, Ed. John Wain. London: Macmillan, 1994: 119-28.
- \_\_\_\_\_. "Diabolic Intellected and Noble Hero: A Note on Othello." *Scrutiny* 34(3): 1937: 261-70.
- Lomba, Anian. "Othello and the Racial Question" *Oxford Shakespeare Topics Shakespeare, Race, and Colonialism*. Eds. Peter Holland and Stanley Wells. New York: Oxford UP, 2002: 38-64.

- \_\_\_\_\_. Race and Renaissance Drama Manchester: Manchester UP, 1989. "Sexuality and Racial Difference," *Critical Essays on Shakespeare's Othello*. Ed. Anthony Gerald Barthelemy. New York: G.K. Hall, 1994: 165-72.
- Matheson, Mark. "Venetian Culture and the Politics of *Othello*." *SC yearbook* 32 (1995): 294-301.
- Neely, Corol T. *Broken Nuptical in Shakespeare's Plays*. New Heaven: Yale UP, 1985.
- \_\_\_\_\_. "Women and Men-In Othello," *Critical Essays on Shakespeare's Othello*, Ed. Anthony General Barthelemy. New York: Macmillan, 1994: 63-71.
- Newman, Karen. "And Wash the Ethiop White: Femininity and the Monstrous in Othello." *Critical Eassys on Shakespeare's Othello*, Ed. Anthony Gerald Barthelemy. New York: G. K. Hall, 1994: 61-67.
- \_\_\_\_\_. "And Wash the Ethiop White," *Feminity and the Monstrous in Othello*, Eds. Jean Howard and Marion F. O'Connor. New York: Methuen, 1987: 125-34.
- \_\_\_\_\_. "'And Wash the Ethiop White': Femininity and the Monstrous in Othello." *Shakespeare Reproduced: The Text in History and Ideology*. Eds. J. E. Howard and M. F. O'Conner. New York: Methuen, 1987: 143-62.
- Rabkin, Norman. *Shakespeare and the Common Understanding*, Chicago: Chicago UP, 1967.
- Ryan, Kiernan. *Shakespeare*. 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1989.
- Rymer, Thomas. "From a Short View of Tragedy." *Othello: Shakespearean Criticism Vol. 4*. Ed. Mark W. Scott. Detroit: Gale Research, 1987.
- Selden, Raman and Peter Widdowson. *A Reader's Guide to Contemporary Literary Theory*. New York: Harvester, 1993.
- Stone, Lawrenc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New

- York: Harper & Row, 1977: 4-11.
- Washington, Edward. "At the Door of Truth: The Hollowness of Signs in Othello" *Othello: New Essays by Black Writers*. Ed. Mythili Kaul. Washington, DC: Howard UP, 1996: 167-88.
- Wayne, Valerie. "Historical Differences: Misogyny and *Othello*." *The Matter of Difference*. New York: Cornell UP, 1991: 153-79.
- Woodbridge, L. *Women and the English Renaissance: Literature and the Nature of Womenkind 1540-1620*. Urbana: Illinois UP, 1986.

<ABSTRACT>

A Study of  
Misogyny and Women's Identity in *Othello*

Min-Jeong Ko  
(Supervised by professor Il-Sang Song)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misogyny of Othello and Desdemona as others and the female identity and tragedy under social factors such as racial prejudice and patriarchy that prevailed in the Elizabethan era. Venetian society in the Renaissance, which is the background of *Othello*, has a widespread perception of ra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nd hatred against women. Especially racial prejudice against strangers and others and the coercion and threat of sexual discrimination and misogyny are becoming a common social phenomenon. The patriarchy of this era also represents the background and customs of society in general and binds women with a kind of chain made by men. These social backgrounds and customs make it impossible for women in Venice at that time to live their lives actively because men create hatred for women and demeaning prejudice against women. It is a realistic situation for women to live a submissive life by being subordinated to men.

Othello is a promising strong soldier at the beginning of the play, but as

he goes into the second half, his self-consciousness and misogyny as an other hidden inside him, eventually reveals his animal appearance. Othello easily falls for Iago's scheme for revenge and loses his discernment, leading to a situation out of control as his sincerity toward his wife doubts his wife at some point. He is reduced to a savage figure, using misogynistic indiscriminate violence and abusive language against Desdemona. Desdemona shows the identity of an active and independent woman as an other in a patriarchal society who directly responds to fathers seeking patriarchal authority and chooses their spouses in Venice at the time when white women and black men were not allowed to marry in the reality of the patriarchal system. However, after marriage, Desdemona loses its subjectivity and changes its identity to a passive attitude, becoming the subject of unfair death.

In conclusion, Othello is a promising strong Moore in Venetian society, but he eventually faces tragedy with his racial prejudice toward him as an other, and his self-consciousness as an other hidden within himself and misogyny. Desdemona tried to find her identity through marriage in an active manner, but her actions in the reality of Venice society at the time when she refused to acknowledge the subjective identity of women lead to tragedy as an other. In the end, the tragedy they face is not just due to their characteristics, but to the tragedy of the overall elements and circumstances of society at that time, such as racial prejudice, hatred an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patriarchy. Therefore, Shakespeare presents the change of the new era by showing Othello and Desdemona, the main characters in *Othello*, through their self-consciousness and resistance, a critical view of the overall prejudice and institution of Venetian society.